

# 아시아, 무기거래량 34% ... 世界 최대市場 浮上

**아시아** 국가들이 냉전소멸에 역행하는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1992년판 군사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통상무기구매에서 전체거래량의 34%를 아시아가 차지해, 中東(21%)을 제치고 최대무기시장으로 부상했다.

아시아 각국의 군비증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태국은 올봄 F16 전투기 18대, C130 수송기 3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함을 96년까지 20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올봄 영국제 전함 2척을 구입키로 결정했고, 여기에 탑재할 프랑스제 엑조세 미사일도 곧 사들일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또 영국으로 부터 전투기 28대를 주문했고, 舊소련에서 미그 29 전투기를 구입하리라는 정보도 있다.

이와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95년까지 무기 구매에 24억불(80년대 후반보다 年 4배늘어난 액수)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만은 지난해 프랑스와 군함 16척 구입에 합의했다.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랑스제 미라쥬 전투기 구입도 추진중이다.

인도는 미국의 반대속에서 핵탑재가 가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F16 전투기 20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은 올해보다 약 4% 늘어난 22조원으로 잡혔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등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10개국이 공식발표한 올해 국방예산총액은 약 37조원이며, 각국 모두 지난해 보다 2~22%정도 늘려 잡았다.

그러나 국방관련연구비, 인건비, 장비유지비 등 각종 항목을 국방예산에 포함하면 총액은 엄청나게 불어난다.

한예로 태국정부가 공식발표한 올해 국방예산은 28억불이나, 실제로는 1백36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네시아도 공식발표 6억불에 비해 추정치는 2백71억불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시아지역 군비강화의 특징은 먼저 바다에서 나타난다.

냉전시대 아시아의 바다는 필리핀 수빅만의 美 해군기지와 베트남 캄란만의 소련군기지가 대충 상호 세력균형을 이루는 상태였다. 그런 세력균형은 이들 해군기지들로부터 미-소가 빠져나가면서 「힘의 진공상태」로 변했고, 그 같은 진공을 틈타 아시아 각국들이 해군력을 증강, 기선을 잡으려는 형국이다.

선두주자인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평화때 建軍한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은 이미 베를린 장벽붕괴후인 1989년 12월 「해군력정비방침」(2005년완료)을 밝힌바 있다. 이 방침은 서기 2000년까지 대공전, 전자전능력을 갖는 함정을 건조하고, 2005년까지는 공격형 원자력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구입한다는등 2단계로 구성돼있다.

중국본토와 해협을 사이에 두고있는 대만은 경제발전과 중국의 해군력 강화를 계기로 최신헌에 미사일함 도입을 추진중이며, 아시아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보유(영국제 구형 2척)하고있는 인도는 특히 인도양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군비강화의 또다른 특징은 장비의 첨단화추세다.

걸프전을 지켜본 아시아 국가들은 현대전에서 첨단무기가 없으면 아예 전쟁을 치를수도 없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다.

이같은 배경속에서 올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항공산업전시회에서는 걸프전을 계기로 인기가 높아진 美製헬기와 패트리엇미사일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또한 최신 미사일과 통신기기를 선보인 이스라엘, 러시아, 그리고 유럽국가들의 전시장에도 인파가 몰렸다.

힘의 공백과 인접국의 군비증강에 아시아국

가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고, 이같은 불안심리는 각국으로 하여금 인접국 보다 성능좋은 무기를 구입케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 日本 군사력 — 사실상 세계 2위

**戰後** 일본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위헌론」의 대상이 되어 온 자위대는 이제 세계에서 2,3위를 다투는 무서운 군대로 변신했다.

일본의 방위청은 자국의 방위비를 세계 6위라고 밝히고 있으나,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이미 88년의 연차보고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비지출 정의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는 미·소에 이어 세계 3위의 액수가 된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92년 3월 현재 호위함 60척, 잠수함 16척, 소해정 30척, 대잠수함 초계기 83기, 대잠수함 헬기 88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수상함정의 수로 보면 영국의 50척보다 앞서 있고, 대잠수함 전투능력의 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서방세계 2위로 평가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蘇연방의 붕괴 이후 세계는 전반적으로 군축의 길로 가고 있으나, 일본은 본격적으로 군축을 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당국은 방위력 증강의 상승기류를 놓치지 않게 새로운 '가상 적(假想敵)'을 찾아내느라고 열심이다. 이들은 중국과 인도의 해군이 근해전력에서 원양(遠洋)전력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정변이 일어나 선상(船上)난민이 대규모로 탈출할 경우 東아시아에 일대혼란이 온다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가가 갖는 의미는 자위대에 있어 특별한 것일 수 밖에 없다.

## 美 공군 및 해군, 초등훈련기 7백 64대 도입 예정

美 록히드사와 이태리 아에르마치(Aermacchi) 및 영국의 롤즈로이스사가 팀을 이루어 미 공군 및 해군 차세대 초등훈련기 후보기종으로 내놓은 복좌식 아에르마치 MB-339A기 미 공군과 해군은 기존의 세스나 T-37B기 및 비치 T-34C기의 수명이 다해감에 따라 총 7백64대(공군용 417대, 해군용 347대)의 초등훈련기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Communications Korea)

